광주 땅값 1위 '충장로2가'…㎡당 1120만원

광주 공시지가 전년보다 5.21%·전남 5.24% 상승

나주 혁신도시 7.59% 올라…전국 4년 연속 오름세

올해 광주·전남지역 표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각각 5.21·5.24% 상승한 가운데 빛가람혁신도시(나주)는 7.59%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2일 2017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 23일자로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전국 표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94% 상승한 가운데 광주(8632필지)는 전년대비 5.21% 상승했다.

광주는 빛그린산업단지.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사업(광산구), 첨단2지구·양산지구 개발(남구),양산택지개발지구(북구)등의 개발 호재가 영향을 미쳤다.

광주는 전년도 변동률 4.35%를 상회했으며 1㎡당 평균가격은 18만1001원으로 나타났다.

광주 지역 최고 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대지)로 1㎡당 1120만원, 최저는 광산구 사호동(임야)으로 1㎡당 660원이었다.

전년대비 표준공시지가가 5.24% 상승한 전남(6만3776필지)은 전년 상승률 4.39%를 웃돌았다. 나노산업단지·연구개발특구(장성), 담양일반산업단지·첨단문화복합단지(담양), 자연드림파크·지리산역사문화체험단지(구례)등의 개발 호재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최고·최저 땅 값 (1㎡당)

- 광주 최저 광산구 사호동 660원
- 전남 최고 목포시 영산로 378만원
- 전남 최저 진도군 눌옥도리 195원
- 전국 최고 서울 명동 8길 8600만원

특히 나주혁신도시는 전년대비 7.59%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토지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당 평균가격은 1만7602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가 최고는 목포시 영산로(죽동·대지)으로 1㎡당 378만원, 최저는 진도군 조도면 눌옥도리(임야) 소재로 ㎡당 195원을 기록하며 전국 최저 지가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작년보다 평균 4.94% 오른 것으로 지가 상승폭은 2014년부터 4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43% 하락세를 보인 2009년 이후 최대치다.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토지수요가 증가했고 제주·부산 등 개발사업이 이뤄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4.40%,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7.12%, 시·군은 6.02% 각각 상승했다.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수도권에서는 서울(5.46%)이 그나마 가장 높았으나 경기(3.38%), 인천(1.98%)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변동률을 보였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06.61 (+3.68)
- ⬆ 금리 (국고채 3년) 1.69% (+0.02)
- ⬇ 코스닥 621.39 (-1.08)
- ⬇ 환율 (USD) 1142.60원 (-3.50)

학군·교통 최적 '용산지구 대성베르힐'

대성건설 279세대 공급…봉선동 학군·순환로 인접

대성건설이 광주시 동구 용산지구 1-2블록에 '용산지구 대성베르힐'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2층~지상20층, 4개 동이며 최근 2~3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구분 없이 가장 선호도 높은 중소형 면적인 59㎡ 단일면적 279세대로 구성돼있다. 〈투시도〉

단지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될 예정이며 공급세대 모두 중소형 면적임에도 전 세대 판상형과 4bay 형태로 설계 돼 있어 채광 및 내부 환기가 뛰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봉선동 인근으로 우수한 생활권도 강점이다. 봉선동과 직접 연결되는 4차선 도로 400m 구간이 2018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봉선동 진출입이 차량으로 1분 소요되며 도보로 7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광주 시내·외를 오갈 수 있는 대남대로와 서문대로, 제1·2 순환로도 인근에 있어 시내 접근성도 우수하다.

봉선동 학군과 주요 학원가와 인접해 있으며 문성고와 동아여고, 대성여고, 대광여고, 설월여고, 수피아여고 등과도 가깝다.

업체 관계자는 "병원 및 대형마트, 유안근린공원, 남구문화예술회관 등 풍부한 생활권을 누릴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해 시공부터 입주까지 안심할 수 있다"며 "용산지구 대성베르힐은 8년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의 형태로 공급하기에 공공임대와 달리 수준 높은 품질과 시스템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9년 6월 입주 예정이며 주택전시관은 광주시 동구 독립로 218번길에 24일 개관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일 호남권 스마트공장 설명회

한국무역협회가 제조업 혁신을 위해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 구축에 나선다.

스마트공장에는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통합한 최적화된 생산시스템이 구축된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24일 광주무역회관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관련기관 대표자를 대상으로 '호남권 스마트공장 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전북지역본부,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주관으로 열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 '스팅어' 혹한기 테스트 22일(현지시각) 기아차의 스포츠 세단 '스팅어'가 스웨덴 북부 소도시 아르예플로그 모비스 동계 시험장에서 혹한기 주행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기아차는 차량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세계 각지의 극한 지역에서 스팅어를 테스트 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中企 '비지니스지원단' 가동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애로 해결을 위해 '비지니스지원단' 가동에 나섰다.

광주전남중기청은 22일 청사에서 전문 상담위원 30명으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발대식을 갖고 상담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지원단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관세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광주·전남중기청 내 민원상담실에 상주하며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무료컨설팅과 전화 상담을 통해 애로 사항을 해결해 준다.

상담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62-360-9137~9) 또는 국번 없이 '1357' 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온라인 상담(www.biz-info.go.kr)을 통해서도 기업 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bigkim@

1월 무역수지 11억달러 흑자…전년비 18%↓

광주·전남 수출보다 수입폭 커

광주·전남지역의 1월 중 무역수지는 수출이 증가했으나 수입 증가 폭이 더 커 11억43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2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1월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 동월(13억9900만 달러) 대비 18.2% 감소한 11억4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5.0% 증가한 38억92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입이 무려 38.3% 증가한 27억4900만 달러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1월 무역수지 흑자 폭은 지난해 12월 12억6300만 달러에 비해서도 9.4% 감소한 수치다.

1월 중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한 10억5600만 달러, 수입은 1.4% 증가한 4억27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6억2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수출의 경우 반도체(18.0%)·가전제품(3.3%)·기계류(12.4%)가 증가한 반면, 자동차(-0.4%)·타이어(-17.1%)는 감소했다.

수입은 기계류(24.6%)·고무(33.7%)가 증가하고 반도체(-9.2%)·화공품(-10.3%) 등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출의 경우 동남아(10.7%)·중남미(70.3%)가 증가했고 미국(-14.5%)·EU(-1.4%)는 감소했다. 수입은 중국(49.9%)·일본(16.7%)·EU(23.0%)이 증가한 반면 동남아(-11.8%)·미국(-0.5%)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중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0% 증가한 28억3700만 달러, 수입은 48.3% 증가한 23억22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5억1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수출은 화공품(32.4%)·석유제품(37.5%)·철강제품(20.4%) 등이 증가했으나 선박(-10.3%)은 감소했다. 수입은 원유(89.2%)·철광(27.9%)·석탄(136.0%)·화공품(13.6%)이 증가했고 석유제품(-20.2%)은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은 중국(44.8%)·동남아(30.8%)·EU(108.2%)·일본(60.5%)이 증가한 반면, 미국(-0.3%)은 감소했다. 수입은 중동(54.1%)·EU(46.3%)·중국(40.7%)·호주(59.0%)·동남아(76.8%) 등이 증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호타이어, 승용차 타이어 구매객 사은품

금호타이어는 타이어프로 등 전국 금호타이어 대리점에서 승용차용 타이어를 구매한 고객에게 다음달 4일까지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행사 기간 중 '마제스티 솔루스'와 '엑스타 PS91', '엑스타 LE스포츠' 제품 4개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금호리조트 법인회원가 우대권과 온천 이용권(아산 스파비스, 화순·제주 아쿠아나)을 함께 증정한다. 또한 솔루스 TA31 제품 4개 구매 고객에게는 온천 이용권이 지급된다.

마제스티 솔루스는 금호타이어 최고의 기술력을 집약해 개발한 최상급 모델로, 국내외 프리미엄 세단에 승차감과 정숙성, 안정성을 제공한다. 마제스티 솔루스는 현재 약 51개 규격까지 라인업이 확대됐고 2016년 기준 전년 대비 약 140%의 판매 성장세를 기록하며 대표 프리미엄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엑스타 PS91은 서킷에서 고속 주행시 필요한 최고의 성능을 일반도로에서도 만끽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300㎞/h 이상의 한계속도에서도 안정적인 내구력과 주행 성능 발휘가 가능하다. 엑스타 LE스포츠 또한 고속 스포츠 드라이빙 성능을 지원하는 타이어답게 스포츠 세단에 적격이다.

이밖에도 '솔루스 TA31'은 대형·중형·소형 차급별 특성을 고려해 인치 별로 각기 차별화된 최적 성능을 갖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다양한 규격과 합리적인 가격, 뛰어난 성능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